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세아메카닉스 (396300)

LG전자·LGES와 동반성장하는 가전·전장 부품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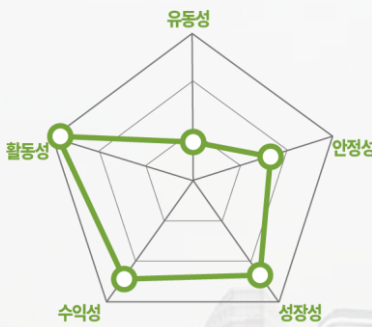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1999년 설립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으로 주요 전방산업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업종이며, 최근에는 로봇스산업에도 진출하여 구동 부품을 공급 중. 특히 구동 메커니즘 분야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여 고객사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첨단IT 신제품(롤러블 TV, 포터블 스크린, 무선 투명 OLED TV, 차량용 팝업 디스플레이, 서빙로봇 등) 포트폴리오 확대 지속. 주요 고객사는 LG그룹의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임
- 투자포인트: 1)알루미늄을 이용한 고진공 고압 Die-Casting 기술이 동사의 핵심 경쟁력, 2)전자 부문은 OLED TV시장 성장 수혜, 3)EV 부품 외형 성장으로 자동차 부품 매출비중은 2025년부터 전자 부문 상회, 4)구동 메커니즘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사업 확대
- 현재가는 2024년 추정 BPS기준 PBR 1.0배 수준. 주가약세는 캐시카우인 전자 부문에서 글로벌 TV 수요 부진이 이어진데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전기차 시장 캐즘에 따른 실적부진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 전기차/배터리부품 수주 급증에 따라 신공장 증설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4분기부터 신공장 매출 반영, 2025년부터는 자동차 부문이 전자(디스플레이) 부문 매출비중을 상회하는 만큼 2차전지 부품업체로 재평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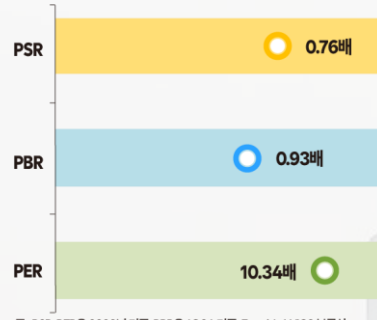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세아메카닉스 (396300)

Analyst 이원재 wonleewj@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2024년 전자 및 자동차 부문 동반 실적 호조 전망

1Q24 매출액 YoY 33.9%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전자 및 자동차 양대 사업 부문 동반 실적 호조. 2024년 매출액 1,050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 전망, 신공장 투자효과가 본격화되는 2025년 자동차(EV) 매출비중은 55%로 처음으로 전자 부문을 상회할 전망

전자 부문은 OLED TV시장 성장 수혜 전망

전자 부문 매출액은 2023년 하반기부터 LG전자의 프리미엄 TV 수요 회복으로 동반 증가세, 2024년 유로 2024 및 파리올림픽 특수로 프리미엄 TV 수요가 회복한데다 향후 2년간 LG전자 OLED TV 출하량은 연평균 16.5% 증가할 전망인 만큼 동사 전자 부문의 동반성장 예상

EV/배터리부품이 향후 동사의 핵심 성장동력

1Q24말 수주잔고는 5,540억 원으로 이중 70% 이상은 전기차向, 30%는 내연기관부품 추정, 동사는 전기차부품 수주물량 대응을 위해 2024년 6월 신규공장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빠르게 4Q24부터 실적에 반영, 2025년 자동차 부문 매출비중은 55%로 전자 부문 상회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억원)	1,048	876	868	1,050	1,483
YoY(%)	26.7	-16.4	-1.0	21.0	41.3
영업이익(억원)	53	23	20	37	68
OP 마진(%)	5.1	2.6	2.3	3.5	4.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2	38	64	43	67
EPS(원)	284	150	240	163	251
YoY(%)	45.8	-47.2	59.9	-32.2	54.6
PER(배)	0.0	29.9	17.0	16.7	10.8
PSR(배)	0.0	1.3	1.2	0.7	0.5
EV/EBITDA(배)	N/A	16.9	16.3	7.8	5.7
PBR(배)	0.0	1.9	1.5	1.0	0.9
ROE(%)	16.9	7.4	9.5	5.9	8.5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7)	2,720원
52주 최고가	4,940원
52주 최저가	2,480원
KOSDAQ (8/7)	748.54p
자본금	26억원
시가총액	721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2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억원
외국인지분율	0.54%
주요주주	에이치피케이 44.93%
	케이브이오호투자유한회사 5.8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5.3	-30.8	-42.6
상대주가	-4.1	-24.9	-31.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A',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 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LG전자·LGES를 최대 고객사로 확보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

1999년에 설립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로, 다양한 첨단 산업의 부품으로 사업 확장 중

세아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으로 주로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왔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전기차 및 2차전지 부품시장에도 진출해 사업다각화를 했으며, 최근에는 서빙로봇, 웨어러블 등 로봇틱스산업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999년 8월 세아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창업과 동시에 LG전자 협력사로 등록되었다. 2000년 기술연구소를 처음 설립하고, Die-Casting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다이캐스팅 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에 집중하였다. 동사는 2001년 벤처기업으로 승인받았으며, 2002년 세아메카닉스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2002년 7월, 2003년 12월 두 차례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본사와 공장이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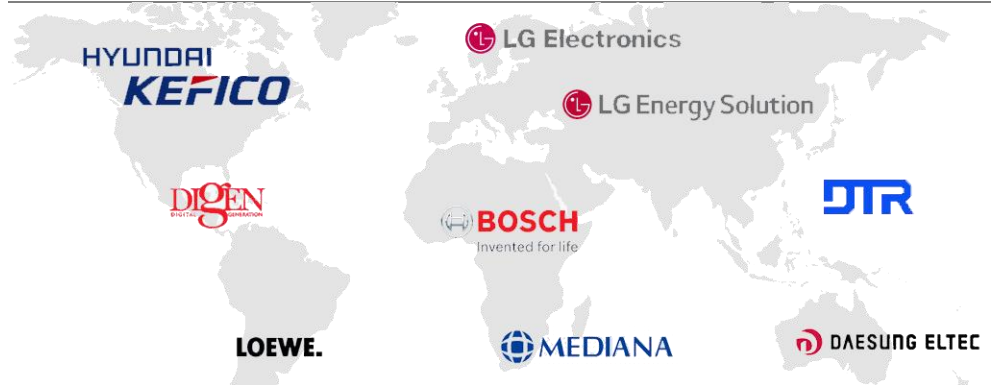
동사는 2005년 LG전자 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현대자동차 주요 SQ를 획득하였고, 2012년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현대캐피코, 로버트보쉬코리아에 전자제어장치(ECU), 변속기 제어장치(TCU)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사로 등록되었으며, 2017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8월 기술연구소 이외에 신규로 소재 부품 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부 R&D과제 기획, 금속소재 분석 및 신사업 발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최근에는 응용기계 메커니즘 부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로봇틱스 사업에 진출하여 서빙용 로봇에 적용되는 기구의 하부 서스펜션 메커니즘 및 부품을 개발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로봇 및 AGV로봇의 부품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2024년에는 IDC(Internet Data Center)사업에도 신규 진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세아메카닉스 연혁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연합회 기업리서치센터

세아메카닉스의 네트워크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2023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 전자부품 56.3%,
- 자동차부품 40.7%,
- 상품매출 0.7%,
- 기타 2.3%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란 Die(금형)과 Casting(주물)을 합친 말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 가운데 금속제의 주형을 사용하여 녹인 액체 비철(금속)을 고압으로 밀어 넣어 생산하는 주조하는 방식이다. 동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로, TV거치 장치, IT 기기 구동 메커니즘 Ass'y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전자부품 56%, 자동차부품 41%, 기타 3%이다. 또한, 국내외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 57%, 수출 43%이다.

전자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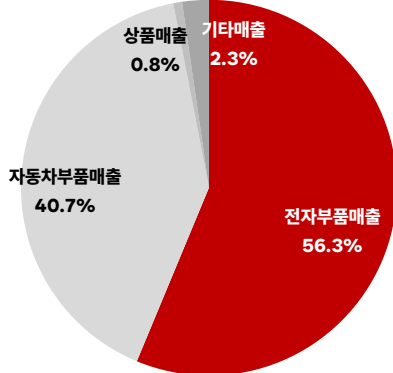
전자부품으로는 테이블에 TV 설치를 위한 Stand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Bracket류 등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다이캐스팅, 플라스틱 사출, 프레스 등 부품 금형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자부품 내 비중을 살펴보면 STAND 45.7%, Bracket 50.8%, 기타 3.6%이다. 동사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설치 용의성, 상하좌우를 부드럽게 방향전환 할 수 있는 편리성을 반영한 기술 등 구동 메커니즘의 선두주자로,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TV모델에서 시청할 때는 펼치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넣은 롤러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으며, 작년부터는 TV를 무선화하여 이동가능한 포터블 스크린의 부품도 제작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바탕으로 2차전지, ESS,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 등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내의 비중을 살펴보면 내연기관부품 59.2%, 전기차부품 25.8%, ESS 8.6%, 수소차 부품 3.5%, 기타 3.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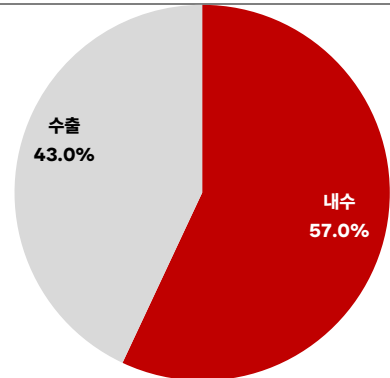
2차전지 부품인 End Plate는 2차전지 배터리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이며, ESS 부품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커버 및 보호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전기차 부품으로는 ICCU Case, Black box Battery Case, Bracket 부품과 전기차 2차전지의 직접적인 보호 역할이 아닌 배터리 모듈을 탑재하기 위한 배터리 팩 부품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부품 7종이 있다. 수소차 부품으로는 현대자동차 1차사인 현대케피코에 공기차단 이동밸브류 3종을 납품하고 있다. 내연기관 부품으로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대케피코와 한국로버트보쉬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

세아메카닉스 사업부문별 매출 구분(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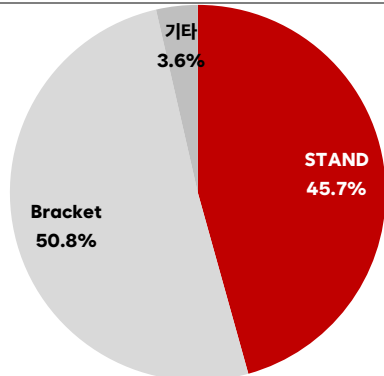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세아메카닉스 매출 구분(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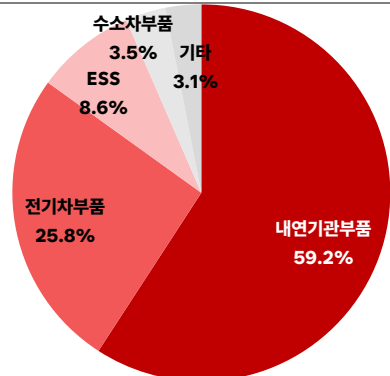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자 부품내의 비중(2023)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동차 부품내의 비중(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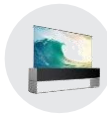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자 사업부문 내 첨단 IT 부품

첨단 IT 기기

투명/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 Ass'y



스탠바이미고 Ass'y



전장 디스플레이 Ass'y



• 업/다운 방식으로 공간 활용도 높이는 디스플레이 구동 매커니즘 구현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동차 사업부문 내 E-Mobility 부품

E-Mobility Parts

이차전지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전기 이륜차 부품



-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최적화 통한
- 외부충격에 인한 안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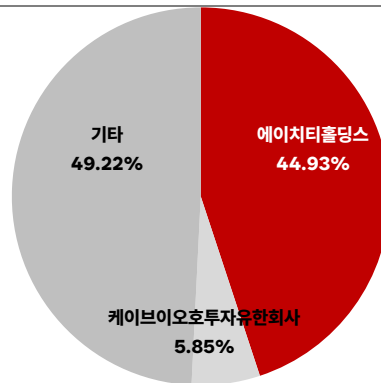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

**최대주주는 에이치티홀딩스로,
지분율은 44.93% 보유**

최대주주는 에이치티홀딩스로 2023년말 기준 지분율은 44.93%이다. 창업자인 김찬한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21년간 동사를 경영해왔으나, 2020년 건강상의 이유로 동사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2020년 반도체 레이저 검사 가공 장비업체인 에이치피케이(HPK)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컨소시엄 형태로 김찬한 대표이사가 보유한 44.8%를 포함한 동사의 지분 85%를 인수하면서 김찬한 대표이사에서 케이브이오호투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 이후 케이스톤파트너스는 동사의 지분을 에이치피케이에 양도 및 장내 매도를 통해서 줄여왔으며, 현재 지분율은 5.85%이다. 반면, 에이치피케이는 동사의 지분을 20%에서 44.93%까지 늘리며 동사에 대한 지배력을 굳혀왔다. 2023년 10월 1일 조창현 대표이사는 에이치피케이의 사명을 에이치티홀딩스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에이치피케이의 사업은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인 에이치피케이로 재출범하였다.

주주현황(2023)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산업 동향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정밀가공, 대량생산에 용이하여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산업 등에 적용

동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이다. 다이캐스팅(Die-casting)은 Die(금형)와 Casting(주물)의 합성어로 주조기에 금형 틀을 장착 후에 녹인 액체 금속을 고압으로 밀어 넣어 생산하는 주조방식이다. 다이캐스팅은 정밀도가 높아 세밀한 가공이 가능한데다, 완성품의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다이캐스팅 공법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TV)산업, 자동차(내연차, 전기차, 수소차)산업, 로봇산업 등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소재의 경량성, 열전도성, 무독성, 저온성, 재활용성, 친환경성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구리, 망간, 아연, 니켈, 마그네슘 등과 합금 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어 신소재 개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금속이다. 알루미늄 산업은 99.99%(4N) 순도 알루미늄 메탈을 생산하는 제련업과 메탈을 가공하여 각종 판, 박, 봉, 전선 등을 생산하는 가공업으로 구분되며, 가공업에는 봉, 관, 샷시류를 제조하는 압출업과 판, 박 등을 제조하는 압연업, 그리고 주물에 넣어 생산하는 다이캐스팅 등으로 구분된다. 다이캐스팅에 사용되는 금속은 알루미늄, 아연, 구리, 마그네슘 등으로 다양하지만, 차량경량화에 따라 특히 알루미늄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그동안 압출이나 압연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기술개발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가전 및 자동차 부문에서 경량화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로봇 등 로봇부품으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경량화 제품으로는 기존에는 주로 내연기관의 엔진 및 변속기 부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전기차, 전력저장장치인 ESS의 보급 확대에 따라 2차전지 배터리 보호용 엔드 플레이트(End Plate)와 ESS 모듈 부품, Heat Sink, DC Case(DC 전류 변환장치)등으로도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 알루미늄 차량 부품을 채택 시 차량 중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비가 개선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알루미늄은 현재 차량경량화를 위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재로서 2012년 자동차 알루미늄 비중은 7%였으나, 2025년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전자사업은 고객사와 제품 개발단계부터 장기간 협업하여 수주경쟁력이 높은 편이며, 전기차용 다이캐스팅 제품은 기술력, 가격경쟁력, 양산능력 등 진입장벽 높고 관련 인증이 필수적

다이캐스팅산업은 시장참여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우량 대기업들의 고품질, 빠른 납기와 같은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동사와 같이 수십년간 협력하는 경우가 많고 공급업체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자사업은 고객사와 제품 개발단계부터 협력하는 만큼 수주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동사가 LG전자에 공급하는 TV 거치대는 크게 스탠드, 벽걸이, 사이니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스탠드는 TV사이즈별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원가경쟁력으로 경쟁업체와 입찰경쟁방식으로 과점체제인 반면 벽걸이 부품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기기의 각도 조절장치 및 고정장치 특허출원 및 자체개발품으로 LG전자에 100% 독점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시장구조는 매우 폐쇄적이며, 산업내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 가격경쟁력, 양산능력이 검증되어야 하며, 특히 ISO14001, ISO45001, IATF16949, SQ 등 다수의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기차 부품용 다이캐스팅 제품은 높은 난이도 설계 및 주조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성 실현이 가능하다.

글로벌 TV산업 동향

**최근 TV시장은 중소형에서
초대형(巨巨益善), LCD TV에서
프리미엄 OLED TV로 전환 중**

TV시장은 1940년대 미국의 전자업체인 RCA가 브라운관 TV(CRT TV)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대중화되었으며, 국내 시장에는 1966년 금성사(現 LG전자)가 브라운관 TV를 첫 출시하면서 1980년대 들어 컬러 TV시대가 열렸다. 1990년대부터는 LCD TV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브라운관 TV를 대체했으며, 2000년대 들어 기술 발전과 패널가격 하락으로 TV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2010년 이후로는 3D TV, Smart TV가 출시되었으며, 최근에는 화질 및 해상도가 크게 개선된 UHD TV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QLED,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TV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LCD TV는 화질이 뛰어나고 생산단가가 낮다는 장점을 보유한 반면 수명이 짧고 소비 전력이 높은 단점이 있어, 이러한 LC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ED 방식의 LCD가 개발되어 2010년부터 보급되었으며, 최근에는 LCD TV에 비해 화질과 성능이 훨씬 뛰어난 OLED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개발되어 기존 LCD TV 시장을 점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OLED TV는 백라이트 없이 픽셀 스스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만큼 LCD TV보다 반응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별도의 백라이트 유닛도 필요 없다. OLED TV는 LCD TV보다 가볍고 얇으며, 전력사용량도 적은데다, LCD TV보다 훨씬 밝고 자연스러운 색감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TV는 巨巨益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TV 사이즈가 50~60인치를 넘어 70-80인치대로 대중화되면서 기존 알루미늄 사출소재를 많이 사용하던 소형 TV와는 달리 대형 TV에는 그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TV 출하량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홈코노미 반짝특수
이후 최근 3년간 수요감소세 지속,
국내2사는 프리미엄 OLED에 집중**

글로벌 TV 출하량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홈코노미 반짝 특수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3년 2.14억 대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전체 TV 출하량 전망치는 2.13억 대로 2023년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인 시그마인텔에 따르면 2024년 삼성전자 TV 출하량은 3,490만 대로 글로벌 M/S의 16%, LG전자 출하량은 2,190만 대로 글로벌 M/S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TV시장 1, 2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수요 부진 영향으로 지난 해 4분기 영상가전 부문에서 동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에 LCD TV시장을 잠식당한 후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프리미엄 OLED에 집중해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LG전자는 글로벌 OLED TV시장 점유율 49%로 1위를 유지했으며, 삼성전자는 OLED TV시장 후발주자로 2022년 뒤늦게 시장에 진출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2분기 처음으로 일본 SONY를 앞지르고 2024년 1분기 들어 글로벌 M/S 24%로 LG전자에 이어 글로벌 시장 2위로 부상하였다.

**최근 유로 2024 및 파리올림픽 등
유럽발 스포츠 이벤트 특수로
OLED TV 교체 수요 증가세**

그동안 중소형 OLED 수요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특수로 호황을 누려왔지만, 스마트폰에 비해 교체주기가 길고 패널단가가 비싼 대형 TV시장에서는 OLED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삼성전자가 OLED시장에 진출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한데다, 유로 2024(유럽축구선수권대회) 및 2024 하계 파리올림픽 등 유럽지역에서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로 OLED TV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발 스포츠 이벤트 효과로 올해 2분기 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매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영상가전(VD) 부문은 2Q24 매출액이 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 증가했으며, LG전자의 HE본부 매출액은 2Q24 3.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하였다. 삼성전자는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LG전자는 2021년 4분기 이후 약 3년만에 두자리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퀀텀 기술을 적용한 LCD TV인 QLED TV를 주력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 CES 2024에서 저화질 콘텐츠도 8K급 화질로 바꿔주는 기능을 탑재한 2024년형 NEO QLED TV를 공개했으며, LG전자도 CES 2024에서 무선기능을 적용한 투명 OLED TV 신제품을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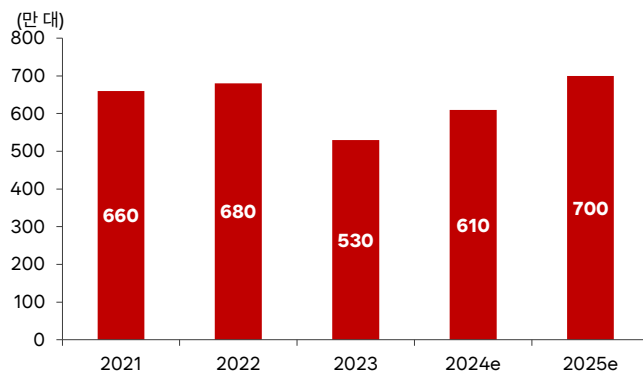
**OLED TV 패널 출하량은
2024년 705만 대로 전년대비
33% 증가할 전망**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OLED TV 패널 출하량은 2024년 705만 대로 전년대비 33% 증가하고, 2030년에는 1,00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LCD TV비중은 2020년 85%에 달했으나, 올해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며,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시장에서 OLED비중은 내년 53%로 처음으로 50%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OLED TV 수요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견인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세이다.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은
2023~2025 CAGR 14.9% 전망,
올해 글로벌 OLED TV시장 M/S는
LG 54.1%, 삼성 31.4%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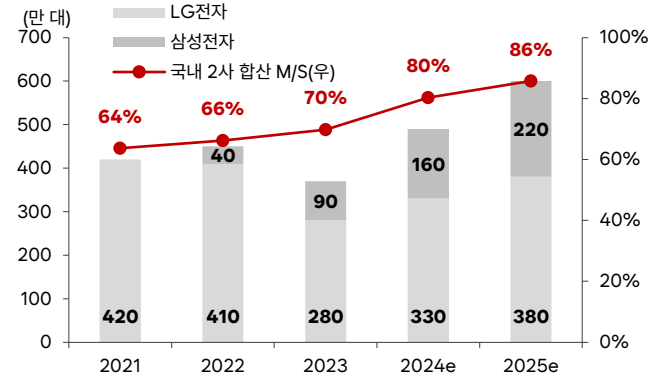
중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시그마인텔은 최근 발간한 2024~2025 전세계 TV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전세계 프리미엄 OLED TV 출하량이 2023년 530만 대에서 2024년 610만 대, 2025년 700만 대로 2개년간 연평균 14.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2년 연간 40만 대를 공급하며 OLED TV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OLED 출하량이 2023년 90만 대에서 2024년 160만 대, 2025년 220만 대로 향후 2개년간 연평균 56.3% 급증하면서 글로벌 OLED TV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OLED TV시장 부동의 1위기업인 LG전자는 2023년 280만 대에서 2024년 330만 대, 2025년 380만 대로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 추정 기준 LG전자 전세계 OLED TV 출하비중은 54.1%, 삼성전자 출하비중은 31.4%로 국내 2개사 합산 출하비중은 85.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OLED TV 출하량 전망: 2023~2025 CAGR 14.9%



자료: 시그마인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2사 OLED TV 출하량 & 글로벌 M/S 전망



자료: 시그마인텔,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23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24만대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 대 회복, 자동차 수출액은 7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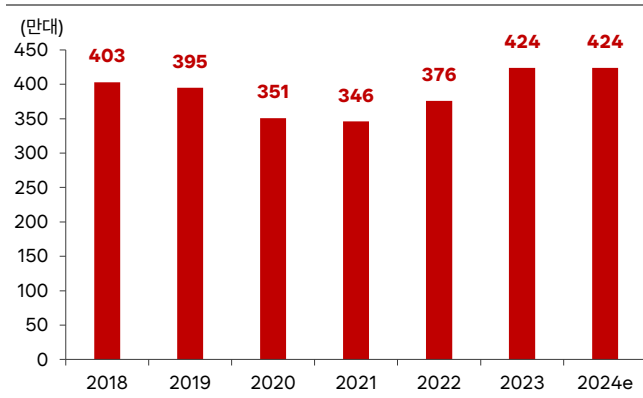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대비 13% 증가한 424만대로 2018년 403만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대를 회복하였다. 생산증가는 2020~2022년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국내 생산의 65%인 277만 대가 수출되었다.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70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최대 수출액인 541억 달러를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수출 증가는 국내 자동차업체가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액이 242억 달러로 전년대비 51% 급증한 영향이다. 2023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709억 달러 수출을 통해 550억 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주요 15개 수출품목 중에서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2023년 국내 판매는 174만 대로 2020년 189만 대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24만 대로 전년 수준 전망, 완성차 수출액은 747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할 전망

2024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15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2% 소폭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수출액은 3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전기차 캐즘에 따른 단기 수요 감소 및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개인 가처분소득 감소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북미지역 수출 호조와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에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지역 상반기 수출액은 21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비중의 58.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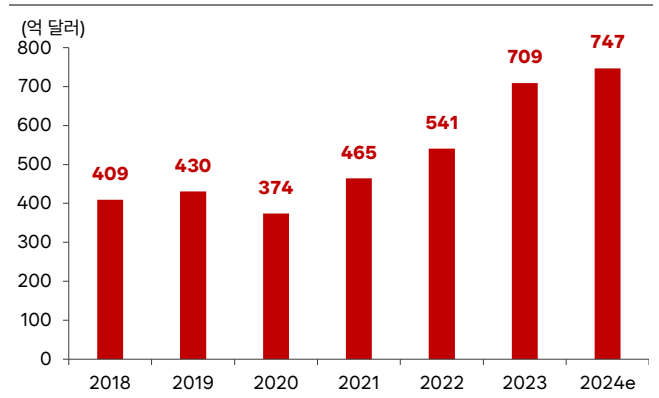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지난 6월 24일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424만 대로 전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수는 165만 대로 전년대비 5.9% 감소하여, 수출은 286만 대로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간 완성차 수출액은 747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할 전망이며, 자동차 부품 수출액을 포함하면 연간 수출액은 980억 달러로 1,0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반기 내수는 신차 출시 및 F/L 등 부분 변경 신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 지속과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제한된데다, 전기차 시장의 단기 수요 둔화(캐즘), 전년동기 높은 실적 달성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하는 84만대로 전망된다. 반면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역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유럽시장 수요 회복, 기존 북미시장의 견조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의 SUV 및 하이브리드 선호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140만 대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 생산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완성차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4 글로벌 전기차(EV) 및 2차전지 시장 동향

글로벌 전기차 및 2차전지시장은 단기 수요정체(Chasm) 국면

2차전지 시장은 각국의 전기차 판매 지원금 도입과 정책적 지원으로 최근 수년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판매 지원금 축소, 충전인프라 부족, 인플레이션, 원재료비용 상승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chasm)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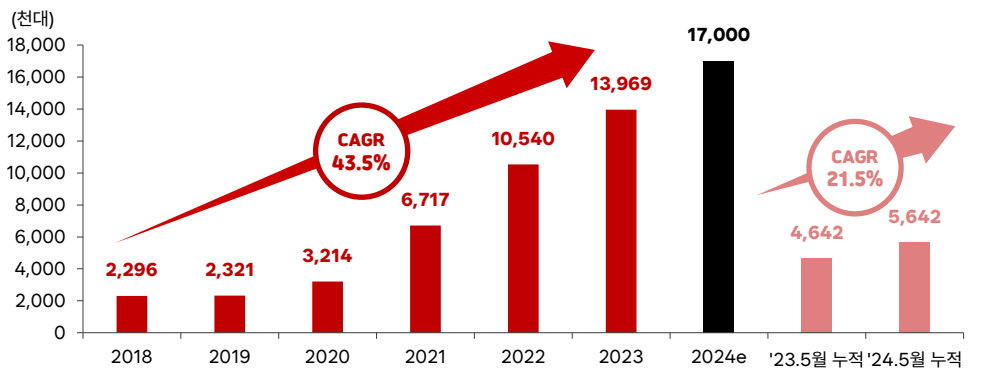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230만대에서 2023년 1,397만대로 연평균 4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18%로 전년도 14%에서 4%p 상승하였다. 연도별 성장률은 2021년 109.0%에서 2022년 56.9%, 2023년 32.5%로 2021년 이후로는 추세적인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SNE리서치의 6월 글로벌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564만 대로 전년동기(464만 대)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인도량을 보면 중국은 338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31.6% 급증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전년동기 55.4%에서 60.0%로 확대하였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유럽, 북미, 아시아 등 Ex-China 지역 합산 인도량은 226만 대로 전년동기(207만 대)대비 9.0% 성장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럽 인도량은 119만 대로 전년동기(114만 대)대비 4.5% 성장에 그쳐 주요 지역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럽지역은 2019~2023년 연평균 51.6%의 고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들어 유럽국가들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전기차 판매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동기간 북미지역 전기차 인도량은 68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했으며, 아시아(중국 제외) 인도량은 28.5만대로 전년동기대비 9.6% 성장에 그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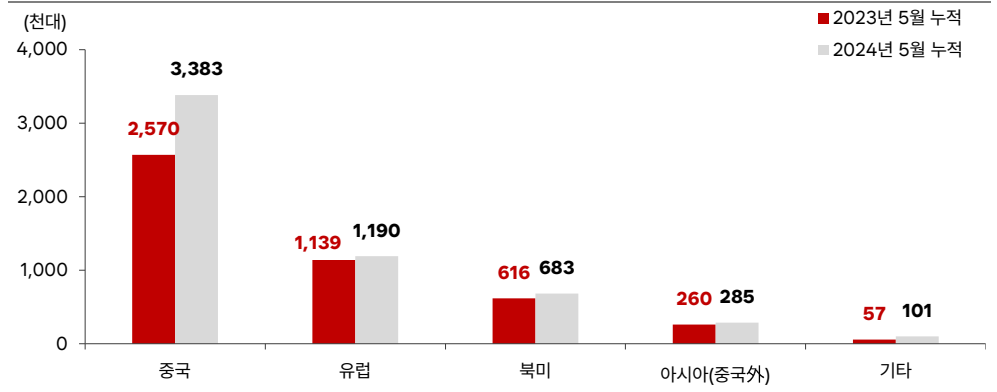
IEA는 지난 6월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1,700만 대로 전년대비 21.7% 증가하고,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비중은 20%로 전년대비 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EA의 연간 전기차 성장률 전망치는 SNE리서치가 올해 1~5월 누적으로 집계한 성장률(21.5%)와 유사한 수준이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



자료: SNE리서치,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석: 2024년 전망치는 IEA의 2024년 6월 전망보고서 참조

2024년 5월 누적 지역별 전기차 인도량 추이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1~5월 누적

글로벌 EV 배터리 사용량은

285.4GWh로 YoY 23.0% 증가

올해 1~5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전기차 판매 증가율과 유사하게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2024년 1~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285.4GWh로 전년동기대비 23.0% 성장하였다. 이는 2017~2023년 연평균성장률 58.3%대비 대폭 하회한 수준이며, 2023년 성장률인 43.9%대비로도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체별로 보면 글로벌 1위인 중국 CATL은 107GWh로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하여 글로벌 M/S가 37.5%로 2.3%p 상승하였다. CAL에 이어 BYD는 44.9GWh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하여 글로벌 2위업체로 부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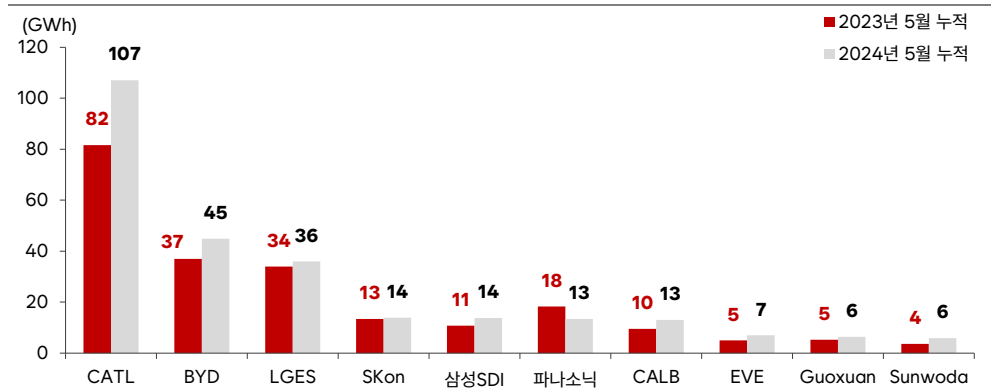
동기간 국내 배터리 3사 사용량은

63.5GWh로 YoY 9.1% 증가하며

성장률 둔화

반면 국내 배터리3사 합산 2024년 1~5월 누적 배터리 사용량은 63.5GWh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에 그쳤으며,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2.2%로 전년동기(25.1%)대비 2.9%p 하락하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35.9GWh로 전년동기 대비 5.6% 성장하여 중국 CATL, BYD에 이어 글로벌 3위업체로 밀려났다. SKon은 13.9GWh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에 그쳐 시장점유율은 4.9%로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하며 글로벌 시장 4위를 유지하였다. 삼성SDI는 13.7GWh로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하며 국내 배터리3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TOP 10업체 중 유일한 일본업체인 파나소닉은 13.4GWh로 전년동기대비 26.8% 역성장하여 주요 10위권 업체 중 유일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2024년 5월 누적 글로벌 EV용 배터리 사용량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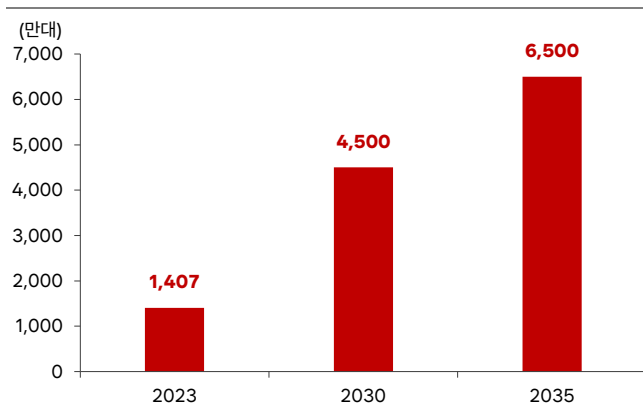
중장기 EV시장 전망은 견조, IEA 전망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1,400만대에서 2030년 4,500만대, 2035년 6,500만대로 증가할 전망

최근 전기차 시장의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기차시장은 견조할 전망이다. IEA가 지난 4월 발표한 Global EV Outlook 2024 보고서에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치를 담고 있다. 첫번째 STEPS(Stated Policies Scenario)는 글로벌 각국 정부가 이미 정책적으로 확정된 목표치를 반영하며, 이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1,400만대에서 2030년 4,500만대, 2035년 6,500만대로 증가한다.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EV)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30년 40%, 2035년 50%로 증가한다. 전세계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2023년 4,500만대에서 2030년 2.5억대, 2035년 5억 2,500만대로 2023~2035 연평균증가율을 22.7%로 전망하고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로서 각국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공약과 목표치가 제때 충족된다 가정된 시나리오이다. APS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비중은 2030년 45%, 2035년 65%로 상승하며, 글로벌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2035년 5억 8,500만대로 2023년대비 13배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성장률(CAGR)은 23.8%로 전망하고 있다. 2035년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를 STEPS 시나리오보다 10% 정도 증가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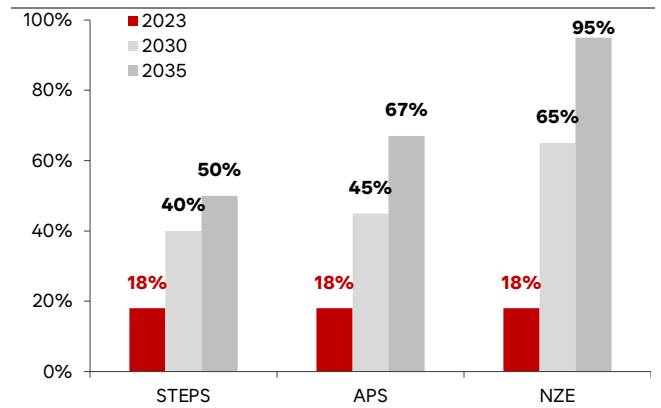
세번째 시나리오는 NZE(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Net Zero로 설정한 쉽지 않지만 달성가능한 규범적인 시나리오이다. NZE 시나리오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비중은 2030년 65%, 2035년 95%에 달할 전망이며, 2035년 전세계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7.9억대로 증가해 2023년대비 18배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성장률(CAGR)은 27.0%로 전망된다.

IEA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 전망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IEA 글로벌 전기차 비중 전망 시나리오



주: STEPS(Stated Policies Scenario),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 NZE(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알루미늄을 이용한 고진공 고압 Die-Casting 기술이 동사의 핵심 경쟁력

알루미늄 소재의 장점과 고진공 고압 다이캐스팅 기술로 디스플레이(TV), 자동차(내연차, 전기차), 로봇틱스 산업에까지 사업다각화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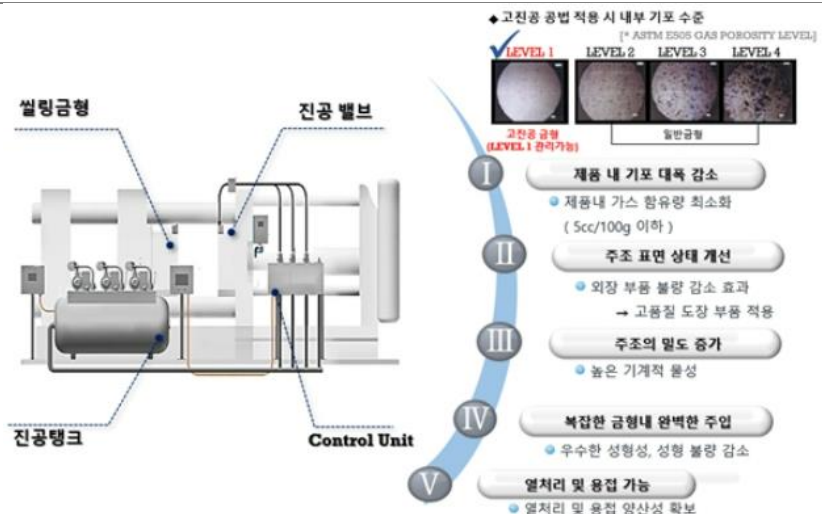
동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1999년 설립 이후 LG전자에 TV 거치대를 납품하면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했으나, 2006년 현대자동차로부터 주조 SQ를 획득하여 2007년 이후에는 자동차(내연기관) 부품사업에 진출하였다. 이후 2015년경 전방산업인 TV산업이 LCD TV 중심에서 OLED TV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TV 무게가 가벼워지고 알루미늄 소재 사용량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자, 동사는 사업다각화로 2016년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로 등록되면서 전기차 및 2차전지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7년부터 주력제품으로 End Plate 매출이 본격화되었다. 동사는 최근에는 신규사업으로 LG전자에 서버로봇 구동부품을 공급하는 등 로봇틱스 시장 선점을 위해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사가 디스플레이, 자동차(내연차, 전기차, 수소차 등), 로봇산업을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다각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소재의 특성상 경량성, 열전도성, 무독성, 저온성, 재활용성, 친환경성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다이캐스팅은 정밀도가 높아 세밀한 가공이 가능하고, 완성품의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진공 고압 다이캐스팅공법은 부품내 기포 크기 및 균집도 저감기술로 제품 불량 최소화에 기여

동사가 자동차 및 2차전지사업 부문에서 적용하는 주요 기술은 고진공 고압 다이캐스팅(High Vacuum High Pressure Die-Casting) 공법이다. 이는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제작된 부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포의 크기 및 균집도를 저감시키는 기술로 동사가 개발한 동종업계 상위급 기술이다. 고진공 금형을 적용할 경우 일반금형에 비해 제품내 가스 함유량을 최소화해 제품내 기포 발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조 표면 상태 개선으로 외장부품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주조의 밀도가 증가해 높은 기계적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금형내 고진공 고압으로 금형내에 완벽한 주입이 이루어져 성형 불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열처리 및 용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진공 다이캐스팅 시스템 구성 및 강점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자 부문은 OLED TV시장 성장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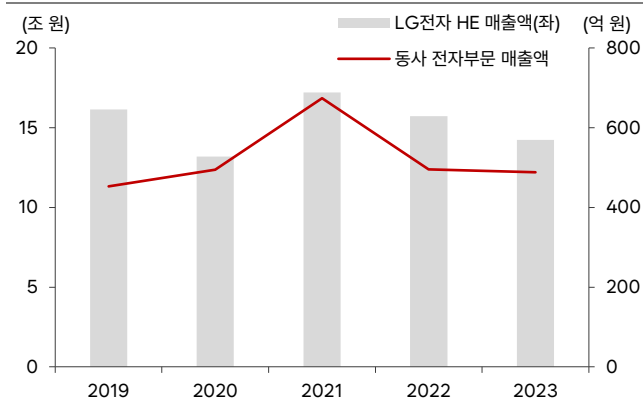
동사는 1999년 설립 초기부터 25년간 LG전자에 TV 거치대 부품 주력 공급

동사는 LG전자 출신의 엔지니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당시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던 전자부품 국산화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LG전자 협력사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25년간 PDP TV, LCD TV, 프리미엄 OLED TV에 이르기까지 동사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활용하여 TV 거치대를 LG전자에 주력으로 공급해왔다. TV를 지지하는 하부 스탠드는 입찰방식으로 경쟁사와 과점 공급하고 있으며, 벽이나 천정에 TV를 거치하는 Wall Bracket의 경우에는 100% LG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LG전자의 시그니처 올레드 TV모델(올레드 R)에 동사가 개발한 구동 메커니즘 부품을 공급하였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스크린이 Up & Down 방식으로 TV를 시청할 때는 화면이 위로 올라가고,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화면을 아래로 말아 넣는 롤러블(Rollable) 방식으로 LG전자와 동사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전자 부문 매출액은 2023년 하반기부터 LG전자의 프리미엄 TV 수요 회복으로 동반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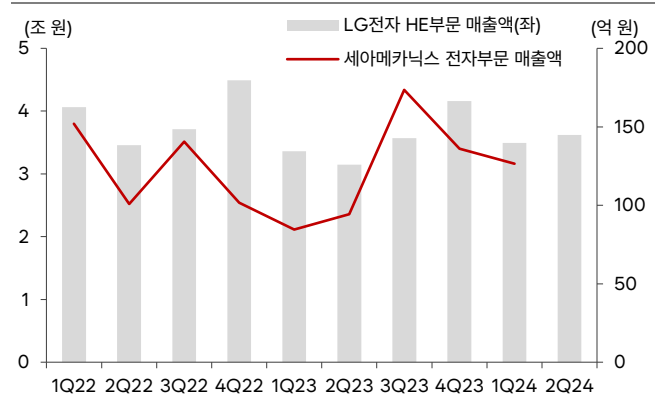
동사는 첨단 IT 디스플레이사업 부문을 사업보고서상 전자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부문 매출액은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홈코노미 효과로 2021년 67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부터 코로나 특수 소멸과 경기불황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2022년 495억 원, 2023년 488억 원으로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전자 부문 매출비중은 2021년 64%에서 2022~2023년 56%를 기록하였다. 매출 감소세를 보이던 전자부문 실적은 2023년 하반기부터 LG전자의 HE 부문 실적 회복세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전자 부문 매출액은 309억 원으로 상반기(179억 원)대비 72.6% 급증한 데 이어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26억원으로 전년동기(85억 원)대비 48.2% 증가하였다.

연간 LG전자 HE부문 & 동사 전자부문 매출액 추이



자료: LG전자,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LG전자 HE부문 & 동사 전자부문 매출액 추이



자료: LG전자,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상반기 유럽의 스포츠 이벤트(유로2024, 파리올림픽 등)로 프리미엄 TV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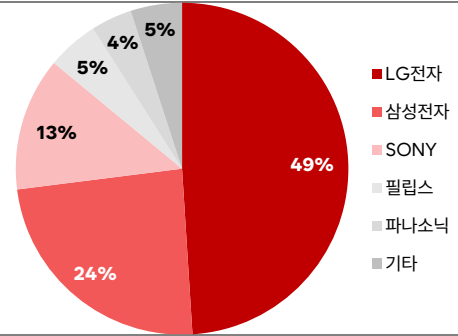
LG전자의 영상가전사업부인 HE부문 매출액을 보면 2023년 2분기(3.1조원)를 바닥으로 2023년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하반기 LG전자 HE부문 매출액은 7.7조 원으로 상반기(6.5조 원)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7.1조원으로 전년동기(6.5조 원)대비 9.2% 증가하였다. LG전자는 HE부문 실적개선에 대해 유럽을 중심으로 유로 2024, 파리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여 프리미엄 올레드 TV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하반기에도 전체 TV시장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올레드 TV의 경우 전체 시장대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R (롤러블 TV)



자료: LG전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OLED TV 시장점유율(1Q24 기준)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향후 2년간 LG전자 OLED TV 출하량은 연평균 16.5% 증가, 동사의 동반성장 수혜 전망

시장조사업체인 시그마인텔에 따르면 2023년 LG전자는 전세계 OLED TV시장 점유율의 53%를 차지해 11년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했으며, LG전자의 OLED TV 출하량은 2023년 280만 대에서 2024년 330만 대, 2025년 380만 대로 향후 2년간 연평균 16.5%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사는 LG전자 올레드 TV의 벽걸이 Wall Bracket을 100% 독점공급하고, 스탠드는 경쟁사와 과점 공급하고 있는 만큼 LG전자와 동반성장 수혜가 기대된다.

EV 부품 외형 성장으로 자동차 부품 매출비중은 2025년부터 전자 부문 상회

자동차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핵심 성장동력

디스플레이사업이 동사의 Cash-cow라면 자동차 부문은 향후 동사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다. 동사는 2012년부터 다이캐스팅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현대자동차의 SQ를 획득하여 현대차의 부품제조업체인 (주)현대캐피코, 로버트보쉬코리아유한회사에 ECU/TCU 커버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LG화학(現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관계를 맺고, 이듬해인 2017년부터 동사의 전자부문 대표 제품인 배터리모듈의 엔드 플레이트(End Plate)를 개발 납품하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였다.

동사의 자동차 부문 제품군은 1)2차전지 부품(End Plate), 2)ESS 부품, 3)전기차 부품, 4)수소차 부품, 5)내연기관 부품으로 구분된다.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End Plate는 단일품목 기준 동사의 최대 주력품목으로 수주잔고는 2천억 원에 육박

자동차 부품 중 동사의 주력제품이다. End Plate는 전기차의 필수부품으로 배터리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하며, 전기차 1대당 최대 33개의 End Plate가 탑재된다. End Plate는 배터리 모듈의 앞뒤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Front/Rear 형태의 세트 구성되어 있다. 통상 다이캐스팅 제품은 기포터짐 불량이나 흔히 발생하는데 동사의 제품은 고진공 다이캐스팅으로 제작되어 타사 제품보다 불량 발생률이 낮아 품질경쟁력이 있다. 동사의 End Plate 제품은 배터리 타입 중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공장(LGESWA)으로 공급된다. 현재 동사의 4천억 원대에 달하는 전기차/2차전지향 수주잔고 중 End Plate 수주잔고는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ESS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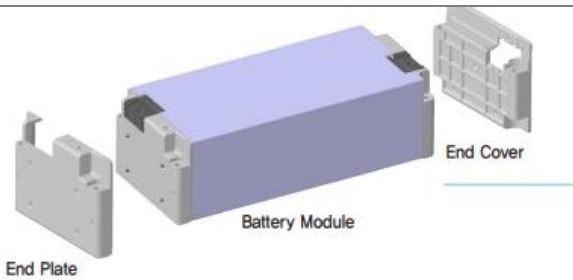
ESS 부품 매출비중은 전체의 3.5%에 불과하지만,

동사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도 커버 및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을 공급한다. ESS 부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에 형상 가공 및 도장 후처리공정을 거쳐 공급하며, 동사가 1차 고객사인 피플웍스로 다이캐스팅 부품을

**고객사의 ESS 사업확대에 따라
성장 가능성 잠재**

공급하면 피플웍스에서 조립공정을 거쳐 최종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납품한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3사는 전기차용 NCM 소재 배터리사업에만 집중된 결과, 중국이 LFP 배터리 적용으로 90% 이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ESS 시장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백업전원으로서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기차시장이 단기수요 정체시기인 캐즘에 빠지면서 국내업체들도 ESS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사의 ESS 부품 관련 매출액은 연간 30억원 내외로 전체 매출액의 3.5%, 자동차 부문 매출액의 8.5%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향후 동사의 전장부문 최대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업 확대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2차전지 배터리 모듈 부품(END PLAT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SS(에너지저장장치)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부품

**전기차 부품 고객사는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 현대캐피코 등**

동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부품으로는 DC Case 부품과 2차전지의 직접적인 보호 역할이 아닌 배터리 모듈을 탑재하기 위한 배터리 팩 부품 7종이 있다. DC BOX는 DC전류 변환장치로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으로 납품되어 최종적으로는 다임러(Daimler)에 공급된다. 배터리 팩은 전기차 바닥에 깔리는 완제품 부품으로 팩 내부에 모듈이 36개가 조립된다. 추가로 현대캐피코에서 독자개발한 전동이륜차 부품도 현대캐피코 베트남공장으로 2021년부터 납품 중이며, 제품은 Motor Housing과 Heat Sink 부품이다.

수소차 부품

**수소차 부품은 현대캐피코에 납품,
적용차종은 현대 넥쏘**

수소차 부품으로는 현대캐피코에 공기차단 이동 밸브류 3종을 납품하며, 적용차종은 현대 넥쏘이다. 현대캐피코는 동사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후 최초로 제품을 납품한 고객사이며, 현대차 협력업체 품질인증인 SQ마크도 획득하였다.

내연기관 부품

**내연기관 부품은
ECU, TCU 등 제어장치 및 엔진
브라켓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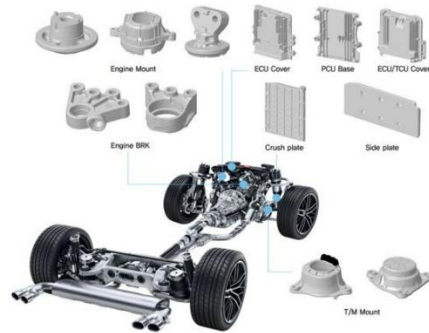
내연기관 부품으로는 ECU(전자제어장치), TCU(변속제어장치) 등 제어기 부분과 엔진 브라켓 등을 자동차 부품업체에 공급 중이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현대캐피코, 한국로버트보쉬이다. 엔진 브라켓의 경우 경남 양산에 소재한 DTR사에 납품되어,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고객사인 GM, 스텔란티스로 100% 수출된다.

수소차 부품 3종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내연기관 부품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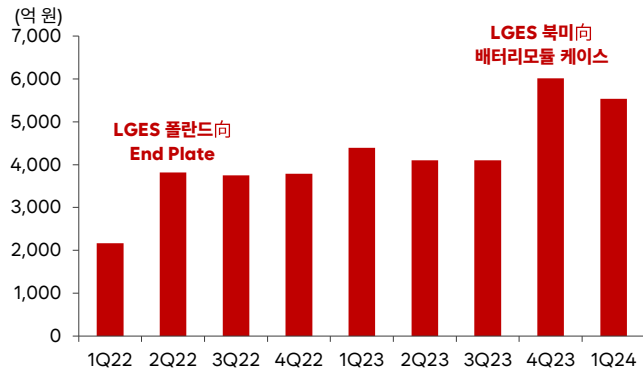
**1Q24말 수주잔고는 5,540억 원,
70% 이상은 전기차向,
30%는 내연기관 부품으로 추정**

2024년 1분기말 동사의 수주잔고는 5,540억 원으로 2021년말 2,169억 원, 2022년말 3,789억 원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사는 2022년 5월 30일 수시공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2건에 걸쳐 총 1,989억 원에 달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부품을 수주하였다. 공급지역은 LG에너지솔루션 해외공장으로 폴란드공장으로 추정되며, 배터리 부품은 End Plate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2022년 3분기 중 세방리튬배터리(주)와 298억 원 규모의 ESS Case Cover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전라남도 광주지역에 공급기로 했다. 이어 2022년 4분기에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주)와 142억 원 규모의 전기차 ICCU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인천광역시에 공급기로 하였다. 2023년 10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1,772억원 규모 북미向 전기차 배터리 모듈커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공급기로 했다. 동사의 수주잔고 5,540억 원 중 약 70% 이상은 End Plate, 배터리 모듈 케이스, ESS 케이스 등 전기차向이며, 나머지 30%는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수주물량 대응을 위해
2024년 6월 신규공장 증축 완료,
빠르면 4Q24부터 실적 반영,
2025년 자동차 부문 매출비중은
55%로 전자 부문 상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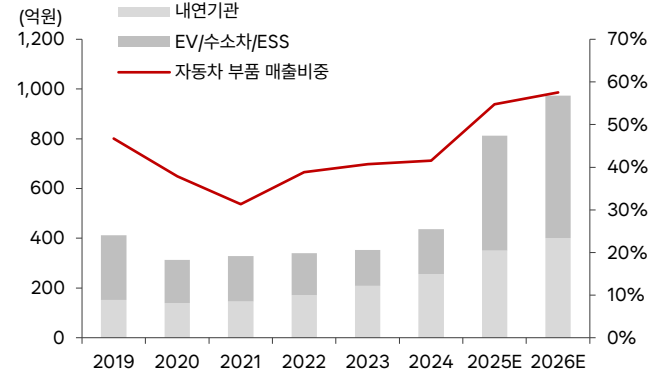
동사는 전기차向으로 급증한 수주물량에 대응하고자 268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말 신규공장 증축을 완료하였다. 신규공장은 약 4,6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전기차向 수주계약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재 양산에 돌입한 상황이며, 빠르면 올해 4분기 중 동사의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다. 전체 수주액 중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대부분으로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의 수주잔고를 감안하면 신공장 증설로 내년부터 전기차 관련 매출이 2배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부문 매출비중은 2023년 40%에서 2024년 42%, 2025년 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세아메카닉스 수주잔고 추이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세아메카닉스 자동차 부문 매출액 및 매출비중 전망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구동 메커니즘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사업 확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업 중

구동 메커니즘에 특보적 기술 보유,

LG전자 협업으로 시그니처 올레드 R

롤러블 TV에 구동 메커니즘 적용

동사가 다이캐스팅기업 중에서 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한 분야는 구동 메커니즘(Driving Mechanism)이다.

구동 메커니즘의 핵심기술은 Mode별 Display 가변 구현 및 소비자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확보 제어 기술과 저소음 설계 기술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System Logic 분석과 요소설계, 하중분석 등이 필요한 기술로 업계에서는 현재 동사를 제외하면 고객사에 납품가능한 경쟁사가 없다.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이 적용된 혁신적인 사례는 LG전자가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출시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R TV(Rollable TV)로 화면이 평상시에는 본체 속으로 말려 있다가 TV를 시청할 때는 화면을 위로 올려 펼쳐주는 Up & Down 방식이다. 동사는 LG전자의 제안으로 롤러블 TV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화면을 움직일 때 소음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화면을 펼쳐주는 구동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동사는 연구과제명 'OLED Rolling UP/DOWN 구동 개발'에 2018년초부터 2019년말까지 2년 여간 개발에 성공했으며, 제품개발 성과로 기술혁신대상을 받았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 출시 당시 세계 첫 롤러블 TV 출시인데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의 관심이 컸지만, 대당 1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에 형성되다 보니 판매대수는 그리 많지 않았고, 현재는 단종된 상태이다. 하지만 동사는 롤러블 TV에 적용되는 구동 메커니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신규제품에도 구동 메커니즘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다음은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기출시되었거나, 개발완료 후 양산을 앞둔 제품군이다.

무선 투명 OLED TV

LG전자가 CES 2024에서 공개한

무선 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에도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 부품 적용

LG전자가 올해 초 CES 2024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무선 투명 올레드 TV(LG 시그니처 올레드 T)에도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이 제품은 기존 올레드 TV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투명한 스크린과 무선 AV 송수신 기술을 결합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원을 끄면 스크린이 투명한 유리처럼 보여 주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고, 기존 검은 스크린이 인테리어를 저해하는 단점을 해결하였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CES 2024에서 최고 제품(The Best of CES 2024)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해 11월 CES 출품작을 대상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수여하는 CES 혁신상의 최고상을 비롯 4개부문에서 5개 상을 받기도 하였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올해 연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구동 메커니즘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 전장용 팝업 디스플레이 개발 완료, 수주 추진 및 양산 대기 중

전장용 팝업 디스플레이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이 적용될 차기 신제품으로는 차량용 팝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동사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POP-UP 구동 Mechanism'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구동 메커니즘을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적용한 제품으로 동사는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수주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동사는 이미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자료: LG전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장용 팝업 디스플레이 컨셉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G전자가 출시한 스탠바이미 Go 포터블 스크린에도 구동 메커니즘 적용, 2023 베를린 IFA 2023에서 제품 최고상 수상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Standby Me Go)'

LG전자가 출시한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에도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다. 스탠바이미 Go는 거실, 침실 등 기존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공원,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화면과 스탠드, 스피커를 모두 탑재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레드백 스타일의 007가방처럼 생겼다.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7인치 터치화면은 위로 최대 90도까지 기울이는 틸트, 시계방향으로 90도까지 회전하는 로테이팅, 최대 18CM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기능에 동사의 구동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

동사의 2024년 1분기 분기보고서상 연구개발 실적을 참고하면 동사는 2023년 5월부터 개발완료시한인 2024년 10월까지 연구과제로 '27형 태블릿형 TV Hinge Stand'를 개발해왔다.

LG 스탠바이미 Go는 2023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으로 제품 최고상(Best of IFA 2023)을 수상하였다.

LG전자 서빙로봇인 클로이에도 구동 메커니즘 적용, LG전자가 7월부터 구독서비스 제품으로 클로이를 추가하면서 구동 부품 매출 확대 기대

LG 클로이(CLOi) 서브봇

LG전자의 서빙로봇인 CLOi에도 동사의 서빙로봇 Ass'y와 구동 메커니즘 기술이 적용되었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6개의 바퀴에 독립 서스펜션을 적용해 급정거나 급출발, 진동 등에 의한 국물 넘침 현상을 방지했으며, 국밥, 라면, 음료 등 액체가 담긴 음식을 싣고도 불규칙한 매장 바닥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클로이 서브봇은 라이더 센서와 3D 카메라가 탑재되어 공간을 인식하고 복잡한 매장내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을 물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에 40KG까지 식기를 배송할 수 있다. 10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기 고객에게는 홍보영상과 메뉴 안내를 하고, 빈좌석이 생기면 에스코트까지 가능하다.

LG전자는 지난달 7월부터 클로이 로봇 구독 서비스(RaaS: Robot as a Service)를 본격 시작하였다. 고객들은 클로이 서브봇을 리테일 매장, 호텔, 병원, 식당 등의 공간에서 구독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LG전자는 향후 구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 25일자 LG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프리미엄 가전고객 10명 중 3명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며, 2023년 LG전자의 연간 구독매출은 1.1조원에 달해 대형가전 구독을 본격화한 지 2년만에 '유니콘 사업'으로 부상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성장세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올해 연간으로도 최대 구독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LG전자의 구독서비스 제품은 총 23종으로 2009년 정수기 렌탈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히 구독서비스 제품을 확대해왔으며, 2023년 구독매출 성장률은 30%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도 30%에 육박하였다.

매년 연평균 30%씩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LG전자의 구독서비스에 서빙로봇인 CLOi가 추가되면서 동사의 구동 프레임과 Ass'y 등 구동 메커니즘 관련 부품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만 하다.

LG전자 포터블 스크린 Standby Me Go



자료: LG전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G 서빙로봇 CLOi



자료: LG전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3년 실적 분석

**2023년 TV 수요 부진과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외형 및 영업이익
동반 부진**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868억 원, 20억 원, 63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0%, 11.5%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전년대비 65.9% 증가하였다.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2023년 법인세 수익으로 30억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이중 투자증가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관련한 수익이 29억 원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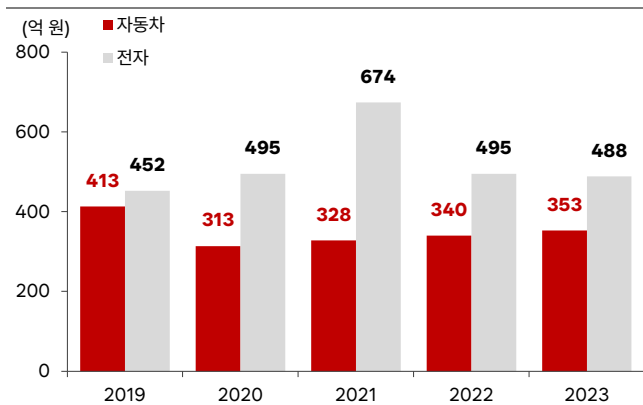
캐쉬카우 사업인 TV시장 부진으로 전자 부문 매출액은 4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부문 매출액은 353억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문을 세분화해 보면 전기차시장 캐즘 영향으로 전기차 부품 매출액은 91억 원으로 전년대비 21.3%나 감소한 반면 내연기관 부품 매출액은 20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하며 전기차 부품 매출 감소를 상쇄하였다.

전자 부문 매출액은 동사의 주력 제품이 LG전자로 TV 거치대인 만큼 LG전자의 HE부문 매출액과 성장성을 공유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와 홈코노미 효과로 2021년 LG전자 HE부문 매출액이 17.2조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5.7조원, 2023년 14.2조원으로 감소하면서 동사의 전자 부문 매출액도 동반 감소를 기록했다. 동사의 전자부문 연도별 매출액은 2021년 674억 원에서 2022년 495억 원, 2023년 488억 원으로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프리미엄 TV 수요 회복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LG전자 HE부문과 동사의 전자 부문 매출액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이 긍정적이다.

**2023년말 수주잔고는 6,01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EV/배터리 부품 수주 증가로
2년여만에 수주잔고 3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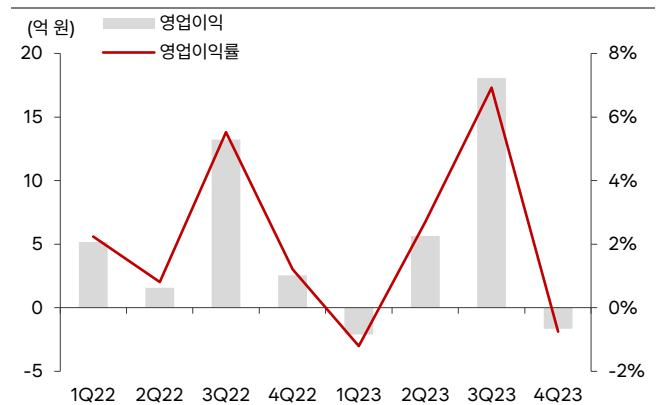
2023년말 수주잔고는 6,01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수주잔고는 2021년말 2,169억 원에서 2년만에 거의 3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22년 5월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2건의 End Plate 수주계약으로 1,989억 원을 확보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는 세방리튬배터리로부터 298억 원(ESS 케이스커버), 캐나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주)로부터 142억원(EV용 ICCU 부품)을 수주했다. 2023년 4분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북미공장 배터리 모듈커버 물량을 1,772억 원 수주하면서 수주잔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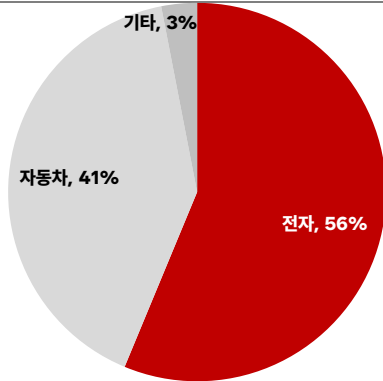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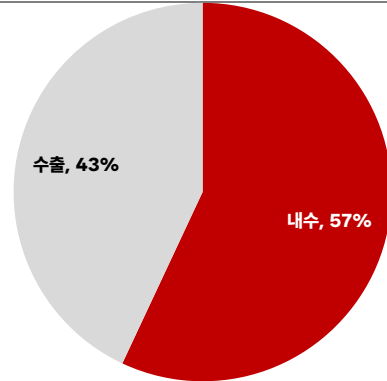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3년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3년 내수/수출 비중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실적 전망

1Q24 매출액 YoY 33.9%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전자 및 자동차 양대 사업 부문 동반 실적 호조

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36억 원, 4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33.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매출액은 전자 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동반 호조를 보였다. 전자 부문 매출액은 12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2% 증가했으며, 자동차 부문 매출액은 9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문 매출액 중에서 내연기관 매출액은 6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5%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부문 외형 증가를 견인하였다. 전기차시장 캐즘이 지속되면서 전기차 부품 매출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동기(25억원)대비 24.0% 감소하였다. ESS 부품 매출액도 8억 원으로 전년동기(12억 원)대비 33.3% 감소하였다.

전자부문 매출액은 유럽지역의 유로 2024 및 파리올림픽 특수로 프리미엄 TV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객사인 LG전자의 HE부문 실적과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매출액 1,050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 전망, 신공장 투자효과가 본격화되는 2025년 자동차(EV) 매출비중은 55%로 처음으로 전자 부문 상회

2024년 연간 매출액은 1,0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전년대비 83.6%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3.5%로 전년대비 1.2%p 상승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전자 573억원, 자동차 436억원, 기타 4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7.4%, 23.5%, 51.6% 증가하면서 전 사업부문에서 실적호조가 예상된다.

2021년 코로나19 특수 이후 지난해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TV 수요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프리미엄 TV 위주로 수요가 회복되고 올해 들어 유로 2024, 파리올림픽 등 유럽궤 스포츠 이벤트가 집중되며 TV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전자 부문 실적 개선 요인이다.

자동차부문의 수주잔고가 지난해말 기준 6,018억 원으로 급증한데다 전기차향 물량증가에 대비해 동사가 신공장 증축을 지난 6월 완료하면서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신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증가가 기대된다. 자동차 부문 매출 증가는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기차/2차전지 부품에서 동반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4년 연간 매출비중은 자동차 55%, 전자 42%, 기타 3%로 전망되나, 신공장 투자효과가 본격화되는 2025년에는 자동차 매출비중이 55%까지 증가해 처음으로 전자 부문 매출비중을 상회할 전망이다.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048	876	868	1,050	1,483
전자	674	495	488	573	628
자동차	328	340	353	436	812
(EV/ESS/수소차)	129	116	91	120	400
기타매출	46	41	26	40	43
매출비중					
전자	64%	57%	56%	55%	42%
자동차	31%	39%	41%	42%	55%
(EV/ESS/수소차)	12%	13%	10%	11%	27%
기타매출	4%	5%	3%	4%	3%
영업이익	53	23	20	37	68
영업이익률	5.1	2.6	2.3	3.5	4.6
순이익	62	38	64	43	67
매출증가율	26.7	-16.4	-10	21.0	41.3
영업이익증가율	6.9	-57.6	-11.5	83.7	85.7
순이익증가율	45.8	-47.2	59.9	-32.2	54.6
매출액	1,048	876	868	1,050	1,483
전자	674	495	488	573	628

자료: 한국IR협의회 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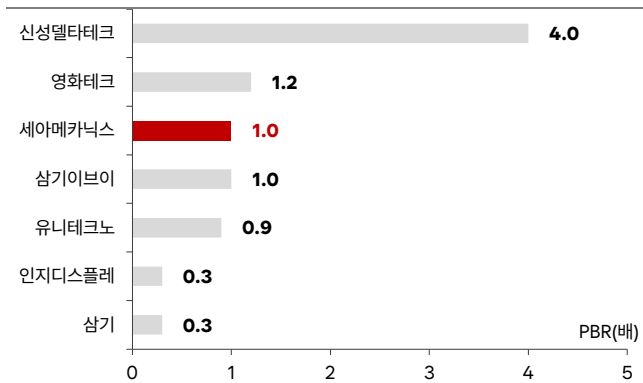
**PER 16.7배, PBR 1.0배로 코스닥
시장대비 저평가 수준,
디스플레이 전자 부문 수요 부진과
전기차 캐즘 영향**

현재가는 2024년 추정실적대비 PER 16.7배, PBR 1.0배로 코스닥평균 PER 23.4배, PBR 2.3배대비 저평가된 상태이다. 연초대비 주가는 33.3% 하락하여 동기간 13.6% 하락한 코스피지수 수익률대비 부진하였다. 당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으로 수요업종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전기차) 등 양대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1년 코로나 특수에 따른 가전수요 호황이후 3년째 이어진 TV 수요 부진에다 최근 들어서는 동사가 5,000억 원대 이상으로 수주를 확대하며 전장용 부품사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이뤘으나, 전기차산업의 단기수요정체(캐즘) 영향으로 전자 및 자동차 등 양대 사업부문에서 수익성 부진을 겪으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동종업체로는 다이캐스팅 기술 기반,
전방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자동차(EV)
부품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장 유사 기업으로는 신성델타테크로
PBR 4.0배에 주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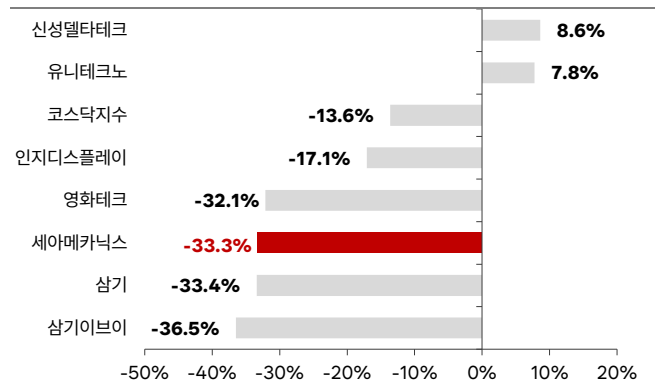
당사의 PEER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디스플레이사업을 영위하거나, EV부품(배터리/ESS) 제조사를 영위하는 기업, 친환경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로는 삼기, 삼기이브이, 신성델타테크, 유니테크노, 영화테크, 인지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당사는 2022년 3월 IPO 당시 유사기업으로 신성델타테크, 유니테크노, 영화테크, 삼기 등 4개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성델타테크와 유니테크노 2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다. 당시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2개사의 평균 PER 22배가 당사의 공모가 확정을 위한 PER배수 산정에 적용되었다. 상기 PEER 중에 2024년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상회하는 신성델타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평균 1,000억 원 미만인데다 가전 및 전기차 등 수요산업 업황 부진으로 PEER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4년 1분기 자본총계 기준 업체별 PBR을 비교해보면 6개사 평균 PBR은 1.3배이나, 업체별로는 차이가 크다. IPO 당시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신성델타테크는 PBR 4.0배로 가장 높고, 신성델타테크와 더불어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유니테크노는 PBR 0.9배로 동사에 비해 낮았다. 신성델타테크는 LG전자의 가전 OEM사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인 신성에스트(주)를 통해 전기차 및 ESS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신성에스티는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ESS 컨테이너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여 수주잔고가 3.8조 원 수준에 달해 성장 기대감이 모회사인 신성델타테크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IPO 당시 유사기업 최종 4개사에 선정되었던 삼기는 PBR 0.3배로 낮는데, 이는 2차전지 부품사업이 따로 삼기이브이로 분사되면서 삼기는 내연기관 부품사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삼기이브이는 지난 해 9월 주가가 7,600원까지 급등하며 PBR 6.0배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현재는 전기차시장 캐즘과 영업적자 지속으로 PBR 1.0로 하락했다.

동종사 PBR 비교(1Q24 자본총계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체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세아메카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수주잔고 70% 이상이 전기차부품,
신공장 증설투자 완료로 2025년
자동차 매출비중이 전자 부문 상회,
2차전지 부품기업으로 재평가 기대**

동사는 2016년 이후 LG화학(現 LGES)의 협력사로 등록되며 2017년부터 전기차 부품사업에 진출했지만, 2023년 매출비중을 보면 저성장산업인 디스플레이사업 매출비중이 56%로 높은 반면 자동차 매출비중은 41%로 낮은데다, 그마저도 전기차부품 매출보다 내연기관 부품 매출비중이 커서 전기차 및 2차전지 수혜기업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수주잔고를 보면 5,540억 원으로 이중 4천억 원대, 70% 이상이 LG에너지솔루션향 2차전지 부품(End Plate, 배터리모듈 부품, ESS 등)으로 추정된다. 동사의 매출비중은 2025년부터 자동차부품이 55%, 2026년 58%로 전자부문 매출비중을 상회할 전망이며, 2차전지 부품계약이 2030년대까지 장기공급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만큼 2차전지부품 전문 공급업체로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2차전지 수주물량 증가로, 2024년 6월까지 2차 전지 부품 전용 신공장을 증축하였으며,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증가하는 2차전지 부품 물량이 실적에 온기로 반영될 전망이다. 신공장 증축으로 2차전지 부품 매출규모는 기존대비 2배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수주잔고는 대부분 전기차 및 2차전지 부품으로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동사의 매출은 향후 5~7년간은 안정적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전기차/배터리부품 매출 증가에 따른 고성장세로 향후 2차전지 부품업종과 동사의 주가 밸류에이션 갭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eer Valuation

(단위: 억원, 배, %)

		세아메카닉스	삼성델타테크	유니테크노	삼기이브이	영화테크	인지디스플레
시가총액		709	11,708	1,090	1,035	738	662
자산총계	2021	537	5,172	1,280	742	646	4,962
	2022	790	6,278	1,555	926	813	4,825
	2023	1,020	6,923	2,097	2,608	864	4,880
	2024E	1,149	N/A	N/A	N/A	N/A	N/A
자본총계(지배)	2021	397	1,509	929	359	527	1,846
	2022	638	1,640	1,170	439	569	1,860
	2023	703	2,072	1,260	722	627	1,995
	2024E	746	N/A	N/A	N/A	N/A	N/A
매출액	2021	1,048	7,375	799	1,169	406	6,172
	2022	876	7,934	824	1,070	479	7,010
	2023	868	8,337	1,019	909	649	6,873
	2024E	1,050	N/A	N/A	N/A	N/A	N/A
영업이익	2021	53	350	74	74	23	113
	2022	23	320	61	86	19	186
	2023	20	284	114	7	50	113
	2024E	37	N/A	N/A	N/A	N/A	N/A
영업이익률	2021	5.1	4.8	9.3	6.4	5.7	1.8
	2022	2.6	4.0	7.4	8.0	4.0	2.7
	2023	2.3	3.4	11.2	0.8	7.7	1.6
	2024E	3.5	N/A	N/A	N/A	N/A	N/A
당기순이익(지배)	2021	62	245	94	-2	26	49
	2022	38	169	49	80	48	39
	2023	64	125	91	50	61	160
	2024E	43	N/A	N/A	N/A	N/A	N/A
PER	2021	0.0	18.6	23.0	0.0	76.4	27.0
	2022	29.9	12.7	17.9	0.0	19.8	18.6
	2023	17.0	90.3	11.3	32.4	18.2	5.1
	2024E	16.7	N/A	N/A	N/A	N/A	N/A
PBR	2021	0.0	3.0	2.4	0.0	3.7	0.7
	2022	1.9	1.3	0.7	0.0	1.7	0.4
	2023	1.5	5.4	0.8	2.3	1.8	0.4
	2024E	1.0	N/A	N/A	N/A	N/A	N/A
ROE(지배)	2021	16.9	16.6	11.2	-0.9	5.0	2.7
	2022	7.4	10.8	4.7	20.0	8.8	2.1
	2023	9.5	6.8	7.5	0.0	10.2	8.3
	2024E	5.9	N/A	N/A	N/A	N/A	N/A
현금배당수익률	2021	0.0	0.7	0.0	0.0	0.3	1.7
	2022	0.0	1.5	0.0	0.0	0.6	3.0
	2023	0.0	0.3	0.0	0.0	0.8	2.7
	2024E	0.0	N/A	N/A	N/A	N/A	N/A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미국 대선 리스크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국내 완성차 및 2차전지 업계에 최대
리스크**

향후 전기차시장의 커다란 리스크는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이다. 석유기업 등 전통 에너지업계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IRA를 폐지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정책도 철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부응해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수조원 투자를 결정한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업체, 협력사에는 우려요인일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에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출을 역사상 가장 큰 세금인상의 원인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북미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 對중국 관세전쟁 확산은 EV 수요에 부정적 요인

**글로벌 관세전쟁 확산은
EV 수요 측면에서 악재 요인**

지난 5월 14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명분으로 수입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최근 EU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최고 48.1%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동차 메이커들은 관세전쟁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048	876	868	1,050	1,483
증가율(%)	26.7	-16.4	-1.0	21.0	41.3
매출원가	927	778	764	926	1,305
매출원가율(%)	88.5	88.8	88.0	88.2	88.0
매출총이익	121	98	104	124	178
매출이익률(%)	11.6	11.2	11.9	11.8	12.0
판매관리비	68	76	84	87	110
판매비율(%)	6.5	8.7	9.7	8.3	7.4
EBITDA	82	58	67	98	127
EBITDA 이익률(%)	7.8	6.7	7.7	9.3	8.6
증가율(%)	12.4	-28.7	14.5	46.4	29.7
영업이익	53	23	20	37	68
영업이익률(%)	5.1	2.6	2.3	3.5	4.6
증가율(%)	6.9	-57.6	-11.5	83.7	85.7
영업외손익	10	7	13	7	6
금융수익	5	9	11	9	10
금융비용	0	4	3	2	2
기타영업외손익	5	2	5	0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63	30	33	44	74
증가율(%)	34.2	-52.6	10.1	32.0	68.8
법인세비용	1	-8	-31	1	7
계속사업이익	62	38	64	43	6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2	38	64	43	67
당기순이익률(%)	5.9	4.4	7.3	4.1	4.5
증가율(%)	45.8	-38.3	66.0	-32.2	54.6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62	38	64	43	67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6	48	76	113	109
당기순이익	62	38	64	43	67
유형자산 상각비	28	35	46	56	56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5	3
외환손익	0	2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5	-18	-9	8	-18
기타	0	-10	-26	1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5	-146	-324	-92	-6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5	-3	-7
유형자산의 감소	0	3	1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25	-143	-265	-121	-55
기타	80	-6	-55	32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	204	172	66	-27
차입금의 증가(감소)	5	4	172	66	-27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199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1	0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1	4
현금의증가(감소)	66	105	-76	87	20
기초현금	38	104	210	133	220
기말현금	104	210	133	220	240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유동자산	260	377	360	426	532
현금성자산	104	210	133	220	240
단기투자자산	0	0	40	8	11
매출채권	88	93	83	101	142
재고자산	51	43	66	53	74
기타유동자산	17	31	37	45	64
비유동자산	277	412	660	723	721
유형자산	254	376	575	640	635
무형자산	5	4	16	11	8
투자자산	7	12	19	22	29
기타비유동자산	11	20	50	50	49
자산총계	537	790	1,020	1,149	1,253
유동부채	131	145	310	394	428
단기차입금	0	4	178	244	217
매입채무	70	68	77	85	120
기타유동부채	61	73	55	65	91
비유동부채	9	8	7	9	12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5	3	1	1	1
기타비유동부채	4	5	6	8	11
부채총계	140	152	317	403	440
자배주주지분	397	638	703	746	812
자본금	22	26	26	26	26
자본잉여금	1	196	196	196	196
자본조정 등	-7	-4	-2	-2	-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381	419	482	525	592
자본총계	397	638	703	746	812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F	2025F
P/E(배)	0.0	29.9	17.0	16.7	10.8
P/B(배)	0.0	1.9	1.5	1.0	0.9
P/S(배)	0.0	1.3	1.2	0.7	0.5
EV/EBITDA(배)	N/A	16.9	16.3	7.8	5.7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EPS(원)	284	150	240	163	251
BPS(원)	1,819	2,407	2,653	2,816	3,067
SPS(원)	4,798	3,434	3,276	3,962	5,598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6.9	7.4	9.5	5.9	8.5
ROA	12.3	5.8	7.0	4.0	5.5
ROIC	18.4	5.7	1.8	5.4	8.7
안정성(%)					
유동비율	199.0	260.9	116.3	108.2	124.3
부채비율	35.2	23.9	45.1	54.0	54.2
순차입금비율	-25.1	-31.5	1.1	5.7	0.7
이자보상비율	556.8	169.5	N/A	N/A	N/A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2.1	1.3	1.0	1.0	1.2
매출채권회전율	10.6	9.7	9.8	11.4	12.2
재고자산회전율	23.4	18.7	16.0	17.7	23.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세아메카닉스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